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 현황

김미화 연구원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는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중도 사회서비스 영역 중 문화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희망률이 워낙 높아 상대적인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향후 서비스 제공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sup>1)</sup>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 중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sup>2)</sup>

-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중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7.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아동돌봄 서비스(4.8%), 문화 서비스(4.3%) 등이 그 뒤를 이음.<sup>3)</sup>
- 전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12.1%) 이용 경험률이 문화 서비스(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는 중고령자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질환의 유무나 건강상태, 비용부담이 이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통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이용자의 비율도 전체의 70% 이상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10. 30).

2)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3)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는 ① 상담 ② 재활 ③ 성인돌봄 ④ 아동돌봄 ⑤ 보건의료·건강관리 ⑥ 교육·정보제공 ⑦ 고용·취업 ⑧ 주거 ⑨ 문화 ⑩ 환경 영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및 욕구 현황을 분석함.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56.1세로 전체 이용자 중 50세 이상 성인의 비율이 71.4%에 이릅니다.
- 이용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이용자는 7.5%,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은 37.8%이며,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42.6%)이거나 ‘보통수준’(31.0%)이라고 응답한 이용자도 전체의 70%를 상회함(〈표 1〉 참조).
-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체로 서비스 비용 지불 및 비용 상승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가구의 절반 이상(55.6%)이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서비스 이용 가구의 81.3%는 향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이 10% 미만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5.4%는 10~20% 상승 시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음.

〈표 1〉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별 이용률

(단위: %)

| 구분 |        | 이용률  | 구분          |                   | 이용률  |
|----|--------|------|-------------|-------------------|------|
| 연령 | 50~59세 | 23.6 | 주관적<br>건강상태 | 건강한 편 또는<br>매우 건강 | 47.9 |
|    | 60~69세 | 20.8 |             | 보통                | 31.0 |
|    | 70세 이상 | 27.0 |             | 나쁜 편 또는<br>매우 나쁨  | 21.2 |
| 장애 | 없음     | 92.5 | 만성질환        | 없음                | 62.3 |
|    | 있음     | 7.5  |             | 있음                | 37.8 |

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실제 이용률은 서비스 필요도와 향후 이용 희망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30.3%이나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sup>4)</sup>은 10.0%에 불과해 나머지 약 20.3%의 가구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4) 이용가구 비율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현재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비이용 사유로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41.8%)과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23.8%), 제공기관부재 및 부족(13.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향후 2~3년 이내 서비스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28.2%로 전체 사회서비스 영역 중 문화 서비스(4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체 사회서비스 영역 중에서 서비스 이용 비율과 이용 의향 비율의 격차(-18.2%)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는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서비스 제공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공급시장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달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부문의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임. **kiri**